



작성자

초등학생



책제목

너도 하늘말나리아

학생 작성 글

친구! 나는 이 낱말이 참 좋다. 친구를 생각하면 친구와 함께 피구하던 일, 대장공놀이, 사방치기하며 뛰놀던 일들이 떠오르며 흐뭇한 웃음을 짓게 된다. 가끔은 친구와 다투어서 절교를 선언하기도 하고, 속상해서 울기도 하지만 여전히 친구 없이는 어떻게 살 수 있느냐하는 생각이 든다. ‘너도 하늘말나리아’에 나오는 세 친구 미르, 소희, 바우를 지켜보며 내 친구들 얼굴을 떠올려 보았다. 그리고 진정한 우정이란 어떤 것인지, 우정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았다.

이 책의 주인공인 미르, 소희, 바우는 저마다 한 가지씩 큰 아픔을 갖고 있다. ①미르는 부모님의 이혼, 소희는 엄마, 아빠가 계시지 않아 할머니와 살고, 바우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말을 잃은 아이이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마음을 다친 미르는 엄마와 다른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손톱을 세우고 자기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 바우 또한 미르에게나 다른 친구에게 맘을 주지 못하고 자기에게만 갇혀 지낸다.

자기가 지닌 ②아픔을 양으로 무게로 따진다는 것이 우습긴 하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나는 소희가 지닌 아픔이 가장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③엄마가고 아빠같은 할머니가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아니니까 말이다. 자신이 지닌 아픔만으로도 힘겨울 텐데 소희는 정말 곳곳하게 자신의 처지를 이겨내고 자신을 사랑하며 친구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연히 미르의 혼자만의 얼굴을 보게 된 소희는 그 일을 친구들에게 자랑삼아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비밀을 지켜주고 미르가 다가오길 묵묵히 기다려준다.

학생 작성 글

소희를 보면서 나는 그런 친구가 못되어서 부끄럽기도 하고 소희같은 친구가 있는 미르와 바우가 부럽기도 하였다.

진정한 친구란 바로 소희처럼 진지하게 친구의 처지를 이해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이이다. 친구들의 상처를 함께 아파하고 가끔은 뒤에서 묵묵히 있어주는 것도 친구로서의 예의라는 생각이 든다. 그보다 앞서 자기 자신을 먼저 아끼고 사랑할 줄도 알아야겠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자기 마음이 넓고 따뜻해야만 친구를 품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나에게 진정한 친구가 생기길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진정한 친구가 되도록 나부터 사랑하고 내 마음자리를 넓혀놓아야겠다.



탐색지도

◆ 대상도서에 대한 이해분석력

○○○ 학생은 책을 많이 읽는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어느 정도 읽으면 잠깐만 책을 훑어봐도 책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이 되면 책을 덩빙덩빙 읽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발전하게 되면 책과 삶을 연결지어 생각하게 됩니다.

○○○ 학생은 대상도서를 읽고 우정과 관련지어 마음을 잘 표현하였습니다. 세 주인공이 가진 아픔을 잘 분석하여 우정과 적절하게 관련지었습니다. 대상도서를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분석하였습니다. 깊은 분석력을 칭찬합니다.

◆ 창의적 사고력

○○○ 학생 글은 독서감상문에 가깝습니다. 우선 '나는'을 주어로 많이 썼습니다. '좋다, 웃음 짓는다, 생각해 본다, 부끄럽다. 생각이 든다, 부럽다.'와 같이 느낌을 표현하는 서술어를 많이 썼습니다. 따라서 독서논술로 창의적 사고력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독서감상문으로 본다면 깊은 사고가 엿보입니다. 우정에 대해 글을 쓴다면 대부분 도덕책에 나온 이야기처럼 친구를 위해 무엇을 해준다는 내용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조은비 친구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창의적 사고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서논술로 글을 써도 잘 쓰리라 생각합니다.



첨삭지도

◆ 문제 해결력

이 글은 참 따뜻한 독서감상문입니다. 그러나 독서논술로는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 해결력을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1문단에 쓴 '우정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논제로 쓴 글이라 생각하고 살펴보겠습니다. 1문단이 참 좋습니다. '친구! 난 이 낱말이 참 좋다'는 표현은 관심을 끌고 호감을 주는 표현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 친구의 우정을 이끌어낸 점도 좋습니다. 객관적인 표현으로 바꾼다면 독서논술로서도 좋은 서론입니다. 2-4문단 내용 대부분은 독서논술의 본론입니다. 우정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 친구의 처지를 이해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둘째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올바른 모습으로 서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깊이있는 독서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두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사용해서 독서논술을 한다면 훌륭한 글이 나오리라 기대합니다.

◆ 문장력 및 표현력

○○○ 학생이 책을 많이 읽은 것 같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문장력과 표현력도 좋습니다. 역시 책을 많이 읽었다고 봅니다. 차분하면서도 생각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으로는 탁월합니다. 더 발전하라는 뜻으로 3군데만 고쳐보겠습니다.

① 미르는 부모님의 이혼, 소희는 엄마, 아빠가 계시지 않아 할머니와 살고, 바우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말을 잃은 아이이다.

- '미르는' ~ '아이이다'로 이어지려면 공통된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미르는 부모님이 이혼하였고, 소희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할머니와 살고 있고 바우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엄마가 돌아가셨다."

지닌 ② 아픔을 양으로 무게로 따진다는 것이 우습긴 하지만

- 아픔의 양을 무게로 따진다는 것이 또는 아픔을 양으로 잴다는 것이



참삭지도

③ 엄마같고 아빠같은

- 비교나 비유의 뜻으로 쓰이거나, 어떤 기준을 나타내는 '같은'은 형용사이므로 앞의 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총평

참 좋은 독서감상문입니다. 생각이 깊습니다. 이 글을 읽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낍니다. 이 정도 실력이라면 독서논술을 써보세요. 잘 쓰리라 생각합니다.